

전북도 산하기관 고가 연구장비 관리 엉망

활용도 50%도 안돼...3억짜리 3000만원대 되팔기도

테크노파크·니트산업연구원 등 행정사무 감사서 질타

전북도 산하기관의 고가 연구장비가 '애물단지'로 전락해 전북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7일 전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테크노파크와 니트산업연구원 등이 각종 연구를 위해 사들인 고가의 장비들이 잘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산하기관 가운데 연구개발 중심 기관인 테크노파크와 니트산업연구원 등은

고가의 연구장비를 해마다 사들이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지역전략산업의 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테크노파크는 올해 연간 예산이 330억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의 연구·개발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의 활용도가 50%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연구원 관계자들조차 1억원 이상

고가 장비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최근 열린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니트산업 관련 기업의 연구지원과 시제품 생산, 패션·디자인 개발 등을 담당하는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역시 고가의 연구장비 관리가 소홀한 것은 마찬가지다.

심지어 2003년에 사들인 3억6250여만 원 짜리 염색가공 분야 효소처리 및 덩플러 건조기가 쓸모없어지자 2012년에 3800만원을 주고 되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철(진안군) 의원은 "수익원에 달하는 장비의 활

용도 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무작정 사놓고 보자'는 이들 연구기관의 몰지각한 행정처리가 도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는 꼴"이라며 "이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고가 장비 구입과정에서 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을 더욱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기업과 출연기관을 포함한 전북도 산하 기관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발전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등 12곳에 달한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까치밥 먹는 딱따구리

지난 14일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에 위치한 귀신사(歸信寺) 인근 감나무에서 큰오색딱따구리 한 마리가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감을 쪼아먹고 있다. '까치밥'은 겨우내 굶주리는 까치와 같은 날짐승을 위해 따지 않고 남겨 놓은 감을 의미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한우·육우 결핵 발병 증가...전남도 퇴치 5개년 대책 수립

5년 주기 전수 조사·특별 관리

전남도가 '소 결핵병' 퇴치를 위해 5개년 대책을 수립하고 도내 소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에 나섰다. 소 결핵병은 그동안 젖소만을 대상으로 검사했으나 올해부터 농립축산식품부가 한우 및 육우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 결핵병 발생농가에 대해 집중 검사에 나서 지난 달 말까지 3000여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3만7000여 마리를 검사했으며, 이 가운데 양성축 65농가 688마리를 색출해 살처분했다. 지난 2012년에는 232두, 지난해에

는 249두에서 소 결핵이 발생한 바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매년 검사를 실시한 1세 이상의 젖소의 경우 결핵 발병 비율이 점차 줄고 있으나, 한우 및 육우에서는 점차 늘고 있어 확산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젖소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전 농가 검사를 유지하되 한우 및 육우는 사육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 5년 주기로 전 농가를 검사하고, 2회 반복 발생농가는 특별관리 농가로 지정해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3회 반복 또는 3분의 1 이상 발생농가는 농가단위로 전 두수를 도제시킴으로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으며, 발병한 소

를 찾아내 살처분하는 근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살처분한 경우 당시 시세를 평가해 전액 보상해 준다.

식육은 도축 검사시 결핵으로 판정되면 해당 축산물은 폐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축 결핵병의 사람감염 사례 보고는 없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가축 자연 면역력 향상을 위해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정기적인 축사 소독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철저히 추진하고,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2005년 브루셀라 검진 대상을 젖소에서 한우 및 육우로 확대하면서 브루셀라 발병 소가 급증한 것처럼 결핵 검진 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소 결핵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으나, 말기에는 식욕결핍, 발열, 쇠약 등 증상을 나타내는 만성소모성 세균성 질병이다. 소에 감염 시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세포 내 기생균으로 항생제나 면역세포에 영향을 받지 않아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으며, 발병한 소를 찾아내 살처분하는 근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살처분한 경우 당시 시세를 평가해 전액 보상해 준다. 식육은 도축 검사시 결핵으로 판정되면 해당 축산물은 폐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축 결핵병의 사람감염 사례 보고는 없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가축 자연 면역력 향상을 위해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정기적인 축사 소독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철저히 추진하고,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세계가 주목한 군산시 평생교육 정책

스페인 IAEC 세계총회 참가

군산시가 지난 13~1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IAEC(국제 교육도시 연합회) 세계총회에 참가해 군산시의 평생교육 우수사례를 알렸다.

'포용 도시를 지향하는 교육도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바르셀로나 세계총회는 IAEC 의장이자 바르셀로나 시장인 사비에르 트리야스(스페인)를 비롯한 34개국 350개 회원도시에서 시장 및 교육전문가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공기업과 출연기관을 포함한 전북도 산하 기관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발전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등 12곳에 달한다.

특히 이번 세계총회 기간에는 군산시의 배달간좌와 문해교육, 새만금아카데미

미, 평생학습만들기 등의 평생교육 결과가 참가 교육 회원도시의 주목을 받았다. 또 IAEC 세계총회 단행본에 '평생학습 도시-군산'라는 특집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참가단은 총회 기간동안 바르셀로나 시의 추천을 받아 국제 창업교육센터인 바르셀로나 액티바를 방문, 현지 총괄담당자와 국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시스템 운영 및 향후 상호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장식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총회 참가를 통해 전세계 교육도시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회원도시들에게 군산시의 교육정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미스 춘향, 남원 홍보대사 위촉

남원시는 지난 14일 올해 춘향제에서 '춘향 진'(眞)으로 선정된 임하늘(22)씨를 비롯한 미스 춘향 6명을 남원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내외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축제,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에 참석해 춘향골 남원과 춘향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남원의 주요 관광지들과 함께 춘향골 추

어탕, 멜론 등의 지역 농특산품을 알리는 데도 앞장선다.

춘향 홍보대사로 위촉된 춘향수상자들은 위촉식 후 관내 의류기관을 방해 입원중인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는 의료 봉사활동을 펼쳐 남원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남원=정규성기자 jgs@

정읍원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소

채소·과일·가공품 등 판매

정읍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 형태로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난 14일 정읍 초산동에 문을 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정읍 원예농협이 운영하는 이 직매장은 7억 5000만원이 투입돼 365㎡ 규모로 만들어졌다.

정읍지역의 농민 280명이 생산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약용작물, 가공식품 320여 가지를 판매한다.

정읍원협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으로 지역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의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됐다"며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 타워 완비

7층 참고은 피부과
입점완료
11월 22일(토) 개원예정

5층 참조은 안과
4층 한길 통증 의원과
3층 신한은행
2층 신한은행 푸른약국
입점운영중

문의 : 010-2007-8848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담양대역면 산 236132㎡(71430) 공시가 9천 사찰 기도원 적합 1억5천
- 금남로 구구점 대지 416㎡(126)공시가 12억7천 은행 8억 매도 11억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97)건평 1235㎡(363) 공시지가 14억 5천 투자기회 좋음 14억, 건물은 5층과 2층 2동 있음.
- 광천동 터미널 인근 6층 건물 대지 661㎡(200)건물 741평 대출 15억 전세 9억 월 430 교환가능 24억 5천
- 롯데백화점 인근 시설좋은 모텔 대지 390㎡(118) 건평 1375㎡(416) 객실 33 은행 10억8천 매도 13억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주거지 6908㎡(2090) 대출 2억 매도 천만원
- 북동 모텔 대지 508㎡(154) 건평 825㎡ 28실 대출 6억5천 매도 9억4천
-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땅 794㎡(240) 건물 100㎡(30) 별장, 펜션, 민박집 적합 교환도 가능 3500만원

투자 매도 교환

- 쌍촌동 신축건물 대지 215㎡(65)건평 418㎡(126) 안길과 원룸 5개 투룸 4개 은행 1억5천 매도 6억3천
- 광산구 동산동 그린벨트 담 2638㎡(798)공시가 3840만원 매도 5500
- 조선대 앞 대로변 동명동 5층 건물 대지318㎡(96) 건평 736㎡(228) 상가와 안길, 원룸 18개 보증금 1억에 월 500수 수익 8억7천
- 진월동 호반 아파트 옆 대지 201㎡(61)대출 7500 매도 1억8200
- 운천역에서 2분거리 주택 대지 170㎡(52) 건평 97㎡(29)1억3천
- 함평군 해보면 문정사거리 코너 준주거 334㎡대출 5천 매도 1억6천
- 전원주택지 남구 압촌동 대지 575㎡(174) 매도 1억8천

임대

- 쌍촌동 기도 생활주택 전서관 자리 234㎡(71) PC방, 오락실, 생맥주 타운 등 다용도 보증금 4천에 월 200이나 타협해서 조정할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서관

나주시 송촌동 자연복지

동신대 인근 2차선 포장도로 점
전원주택단지, 공장, 창고부지 최적!

- 지역 : 자연복지
- 지목 : 전 및 과수원
- 면적 : 16,200㎡
- 임대가 : 3.3㎡ 당 20만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주거지역, 주변 환경 및 조망권 최고,
더 이상 좋은 전원주택지는 없습니다.

- 지역 : 1중주거지역(2필지)
- 지목 : 전
- 면적 : ①600㎡ ②780㎡
- 매가 : 3.3㎡ 당 140만

세하동 토지

세하동 서광구역 뒤 주거지역 및 그린벨트, 도로 점,
전원주택지 및 투자기회에 좋습니다.

- 지역 : 주거지역 및 자연복지
- 지목 : 대지 및 임야(현황:전)
- 면적 : 7,439㎡ (주거1,112㎡, 복지 6,327㎡)
- 매가 : 3.3㎡ 당 38만

준공업지역

평동공단 1번도로 끝 계획도로 점, 전 및 임야 투자적합

- 지역 : 준공업지역
- 지목 : 전 및 임야
- 면적 : 9,027㎡
- 매가 : 3.3㎡ 29만

지번문의 사절

행운(구 대정)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 창 석
011-642-7777

상가건물 임대 150평

농성동 상록회관 근처
현,약품도매상 성업중

지하 1층
지상 1,2층
(총 150평)

대형주차장 완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0만원

062)367-1254
062)367-1259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